



글·사진 : 편집부

국내 유통산업의 최신 동향을 한눈에! 2011 한국국제유통산업전 성료



대한민국 유통인의 축제 '2011 한국국제유통산업전'이 개막했다. 한국국제유통산업전은 지난 4월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펼쳐졌으며,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코엑스가 공동 주관하는 행사다.

금번 한국국제유통산업전이 예년과 다른점은 대형유통업체 동반성장관을 마련해 구매, 입점을 상담한다는 점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에 대

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발맞춰 유통업체 바이어와 중소기업이 직접 만나 입점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유통기업 동반성장 홍보관을 마련했다.

전시장은 크게 식품유통관, 생활용품관, 점포설비관, 유통물류 및 시스템관 등 4개관으로 구성됐다. 특별관인 '동반성장 홍보관'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GS리테일, 농협하나로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와 드림디포, 우체국쇼핑이 거래(입점)상담을 한다.



3



4



5



6



7

1 2011 한국국제유통산업전을 찾은 관람객 2 전시장 입구에 선보여진 신상품 쇼케이스 3 진로 즐겨찾기 소주 시음회 4 하이트 맥주 시음회 5 롯데마트 홍보관 6 광역유통주체 홍보관 7 �뚜기 홍보관

또 녹색유통과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 ‘에코백쇼룸’을 마련해 유통업체들의 친환경 장비구니를 전시해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각 시도의 특산물과 우수상품들을 선보이는 ‘광역유통단체관’도 이번엔 처음으로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전시회와 함께 유통관련 트렌드를 소개하는 ‘KOCA 세미나’, ‘한국유통학회 심포지엄’ 등 창업 세미나도 열렸다. 또한, 개막일인 26일 지식경제부는 ‘2011 한국유통산업진흥 공로상’ 시상식을 진행해 유통업 발전에 이바지한 12명에 대해 장관 표창을 수여

하기도 했다. 유통선진화 부문에 롯데슈퍼 소진세 대표를 비롯한 3명, 유통협력 부문에 농협하나로마트 안종일 사장 등 3명, 중소유통발전 부문에 고양시수퍼마켓 협동조합 박기우 고문 등 3명, 유통정책지원 부문에 국민대 이수동 교수 등 3명이 수상했다.

한편 한국국제유통산업전 관람입구에서 얼마 지나지 않은 곳에 우리 회원사인 (주)코리아더커드의 홍보부스가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주)코리아더커드는 오리 유통업체서 유일하게 전시에 참가하여 녹차 먹여 키운 ‘다향오리’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주)코리아더커드는 부스 왼편에 홍보 TV를 설치해 ‘다향오리’의 브랜드 입지를 다지는 한편 간편하게 즐기는 오리요리 팸플릿을 전면에 배치하여 오리고기도



행사스케치

2011 한국국제유통산업전 성료



⑧국제팬촉물 협회에서 선보인 기념품 샘플 ⑨well-bath의 천연비누 ⑩쥬코리아더커드와 팜덕 홍보관 ⑪다향오리 제품을 살펴보는 관람객 ⑫쥬코리아더커드의 오리훈제 시식진행 ⑬냉장 쇼케이스에 진열된 다향오리 제품 ⑭쥬코리아더커드의 팜덕 릿 진열 및 배포 ⑮다향오리 떡갈비 시식

손쉽게 가정용으로 요리할 수 있는 식품임을 알렸다. 실제 (주)쥬코리아더커드는 독창적인 사육방법과 다양한 제품개발을 통해 외식업에 소비 비중이 컸던 오리고기를 가정식문화로의 도입에 앞장서며 새로운 홈푸드 트렌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또한 오리요리 중에서도 가장 간편하고 간단하면서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제품인 훈제오리와 떡갈비 시식행사를 벌여 관람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국내 유통의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였던 서울

국제식품산업대전에서 (주)쥬코리아더커드는 국내 오리유통업계를 대표하여 국내산 오리고기의 맛과 우수성을 입증하고, 소비홍보 촉진을 도모했다.

요즘은 창의력이 주목받고 있는 아이디어 시대다. 평소 시중에서 볼 수 없었던 톡톡 튀는 아이디어 상품이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트렌드에 민감하고 좀 더 편리하면서도 아이디어가 깃든 상품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었던 '2011 한국국제유통산업전'. 내년에는 한층 더 성장한 전시회로 만나길 기대한다.